원산도지방의 제의에 대하여
(元山島地方의 祭儀에 대하여)

河 孝 吉

目 次

1. 序言
2.배고사
3.水魂祭
4. 龍王祭
5. 結言

1. 서언(序言)

근래에 와서 문명(文明)의 물결은 한 사회에 새로운 문화(文化), 새로운 풍속(風俗)을 이루고 있지만. 농촌(農村)이나 산간지방(山間地方), 어촌(漁村), 도서지방(島嶼地方) 등(等)에서는 대도시(大都市)에서 보다 아직도 우리 조상(祖上)적부터 내려온 고유(固有)한 풍속(風俗)을 많이 볼 수 있고, 지켜오고 있다.

특히 서해안(西海岸)에 위치(位置)한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은 인근 대소(大小)섬들과 더불어 이에 대표(代表)되는 지역(地域)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의 제의중(祭儀中) 산(山)에서 지내는 당제(堂祭)와 바닷가에서 지내는 배고사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바닷가에서 지내는 배고사. 용왕제(龍王祭) 등(等)의 제의(祭儀)에 관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2. 배고사

원산도(元山島)와 인근 작은 섬들은 새해를 위해 섣달 그믐과 정월 보름에 배고사를 지내는 것이 큰 행사이다. 마을 앞 선저장(船著場)마다 배들에 5색기(色旗), 3색기(色旗) 및 단색기등을 달아 놓으면서부터 배고사의 행사는 시작된다.

이 배고사는 물론 대형, 소형의 배를 가진 선주(先主)들이 지내는 것이지만 마을 전체인의 관심이 미쳐 마을 행사로서의 의의(意義)를 지닌다. 선주(船主)들은 그믐날 아침 또는 낮에 어선(漁船)에 삼색(三色)또는 사색(四色)의 직사각형기(直四角形旗)와 작은 원색기(原色旗) 등(等) 여러 가지 기(旗)를 장대에 묶어 단다. 기(旗)를 다는 위치(位置)는 일정치 않으나대체적으로 배의 앞머리와 뒷부분에 3색기(色旗), 5색기(色旗)등을 달

고 작은 원색기(原色旗)는 대를 짧게하여 중심부분과 앞 뒤 끝에 꽂는 경우가 많다.

깃발의 색(色)은 삼색기(三色旗)의 경우 빨강, 노랑, 파랑색(色)으로 주로 삼원색(三原色)이고, 빨강, 파랑, 흰색의 경우도 있다 오색기(五色旗)의 경우는 빨강, 노랑, 파랑색에 흰색과 녹색(綠色)이 더 첨가되었다. 그런데 삼색기(三色旗)나 오색기(五色旗)의 동일(同一)한 특징(特徵)은 깃발 안 쪽에 검정색(色)깃을 이어 단 것이다.

기(旗)의 색(色)갈 배열도 일정치 않으나 아래의 그림과 대부분(大部分) 흰색이 중간에 배열되어 있었다.

검 정 색	빨강색 노랑색 흰 색 녹 색 청 색

검 정 색	녹 색 빨강색 흰 색 노랑색 청 색

작은 원색기(原色旗)는 흰색, 빨강색이 많다. 어선(漁船)에다는 이 기(旗)는 선주(船主) 자신이 만들어 다는 경우도 있고, 어선(漁船)과 관계되는 시장의 선박회(船舶會)나 어선(漁船)과 관계(關係)가 있는 인사(人士)가 보내오는 경우도 있다.

기(旗)에는 위의 그림과 같이「축 발전 삼강호」 「축 진양」등 어선(漁船)의 발전(發展)을 축원(祝願)하는 글이 일정치 않게 적혀 있다. 이 글은 기증(寄贈)하는 쪽에서 써 보낸다. 그리고 어떤 기(旗)의 경우는 기(旗)의 윗쪽에「상(上)」자(字)를 써 놓은 것도 있다.

기(旗)의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깊이 고찰(考察)된바 없고, 현지(現地)의 조사(調査)를 통(通)하여 얻은 결과(結果)는 두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

그 첫째는 인간(人間)이 설빔을 하듯이 서낭을 위해서 기(旗)로 배를 장식(裝飾)한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배서낭을 위한 치장(治粧)이라는 이야기이다. 사실 섬 바닷가의 어선(漁船)에 오색기(五色旗), 삼색기(三色旗), 원색기(原色旗)등(等)을 달아 그 울긋불긋한 모습은 멀리서 보아도 호사(豪奢)스럽고 섬 전체가 축제(祝祭)기분을 느끼게 하였다.

또 하나는 기(旗)자체가 곧 서낭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도록 해주었다. 그것은, 배에서 서낭이 상(上)이니까 기(旗)에다「상(上)」자(字)를 쓴다는 고노(古老)의 이야기를 모은 결론(結論)에서였다. 그러나 기(旗) 자체를 신체(神体)로 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은 상당한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배안에서 고사(告祀)를 지낼 때 기(旗)에 대(對)하여 제물(祭物)을 차려 놓은 것은 아니었고 마을 쪽에서 바다 쪽으로 고사(告祀)의

향방(向方)을 정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향방(向方)은 그 제사(祭祀)의 대상(對象)이 기(旗)라고 보기 보다는 바다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어선(漁船)에 다는 기(旗)의 의미(意味)는 어느쪽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아직 조사(調査) 사례(事例)가 적고 자료(資料)가 불충분(不充分)한 현입장(立場)에서 더많은 사례(事例)의 조사(調査)를 필요(必要)로 하며 더욱 나아가서는 이곳 원산도지역(元山島地域)의 작은 섬들에서 볼 수 있는 제사대상(祭祀對象) 신체(神體)인 당목(堂木)에 금기줄(금줄)을 맬 때에도 삼색(三色)의 헝겊들을 묶어 매는데, 이 당목(堂木)에 매는 색(色)헝겊과 배고사 때에 다는 색기(色旗)와의 관련 및 성경여부와 이것이 과연 설빔에 해당되는 호사(豪奢)한 주장이냐 신체(神體)의 표시(表示)이냐 하는 것은 앞으로 더 조사연구(調査硏究)가 되어야할 것으로 본다.

기(旗)의 수효는 한 어선(漁船)에 3, 4개 또는 10개 이상 다는 배도 있다. 그리고 고사(告祀)가 끝나면 기(旗)를 바로 걷우기도하나 보통 2, 3일간 달아 매둔다.

이곳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에서 바다에 지내는 제사(祭祀)로는 배고사 외에도 용왕제(龍王祭), 수혼제(水魂祭) 등(等)이 있는데 용왕제(龍王祭)는 그 대상신(對象神)이 용왕(龍王) 즉 바다의 신(神)(해신(海神))이 되며 수혼제(水魂祭)는 주로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다에 빠져 죽은 인간(人間)의 혼령(魂灵)에게 지내는 제사(祭祀)이다. 그런데 배고사는 1年 내내 배를 지켜 주고 관장(管掌)하는 배의 주신격(主神格)인 배서낭에게 지내는 것이다. 따라서 배고사의 대상신(對象神)은 배의 서낭이다.

이곳 주민(住民)들은 배고사의 대상신(對象神)을 말할 때 그 발음(發音)이 서낭(성황(城隍))인지 선왕(선왕(船王))인지 구별(區別)하기가 어려워 서낭과 선왕을 구별(區別)하여 재삼문의하여 보았으나 구체적(具體的)인 답을 얻기는 어려웠다.

섬지방인 제주도의 경우에도 배에 서낭을 모신다는 조사보고(調査報告)[1]가 있고 임동권박사(任東權博士)의 「한국세시풍속(韓國歲時風俗)」[2]에도 배고사는 배서낭을 제사(祭祀)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다. 그러나 이 배고사의 대상신(對象神)인 서낭이 과연 서낭을 의미(意味)한 것이냐 아니면 선왕(船王)을 의미(意味)한 것이냐에 대(對)해서도 가볍게 흘려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본다. 이 문제 역시 좀 더 넓은 조사(調査)와 깊은 연구(硏究)가 필요(必要)하지 않을 까 생각한다. 이 배고사의 제물(祭物)은 선주(船主)의 집에서 준비했다가 가지고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떡시루, 돼지머리, 파래나물,고사리나물, 무나물, 김치, 생두부 등 그리고 제주(祭酒)이며 가장 중요(重要)한 제물(祭物)로는 떡시루와 돼지머리, 제주(祭酒)이다.

제물(祭物) 차림은 배의 측면을 육지(陸地) 쪽으로 고정시켜 놓고, 선상(船上)에다 육지(陸地) 쪽에서 바다 쪽으로 향(向)해 제일 앞에 떡시루 놓고 그 오른 쪽에 돼지머리 그리고 왼 쪽과 앞쪽에 나물들을 적당히 배열하며 술잔은 왜지머리 뒷 쪽 자리에 올린다.

제물(祭物) 차림의 중점(重點)은 역시 떡시루와 돼지머리이다. 나물 배열은 특별한 순서가 없고 술잔 역시 적당한 빈자리에 올린다. 떡시루는 쌀 한 말정도, 형편에 따라서는 2, 3말 정도 찌는 경우도 있다. 쌀은 보통 메쌀이고 팥고물을 얹는다, 돼지머리는 삶어와서 올리며 제주(祭酒)는 막걸리를 사다가 이용한다. 생두부는 큰 접시에 네모나게 칼질을 해서 올리고 나물들은 한 접시 혹은 두접시씩 올린다. 나물등 찬은 준비하는 쪽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 어물찜을 올려 놓는 경우도 많다.

제사(祭祀) 과정(過程)은 특기할만한 것이 없으며 선상(船上)에 제물(祭物)을 차려 놓

고 선주(船主)가 술잔을 따라 올린 후에 사배(四拜)하며 기원(祈願)하는 것으로 끝난다.
제주(祭酒)는 선주(船主) 자신이 되는 셈이다. 고사(告祀)를 준비해서 마치는 동안 마을의 이장이나 동계장등 인사(人士)들과 많은 마을인이 선상(船上)과 배 주위에 모여 구경하며 고사(告祀)가 끝난 후에 술과 차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큰 배를 가진 선주(船主)나 많은 배를 가진 선주(船主)는 술과 안주를 충분히 준비하여 고사(告祀)에 나온 사람들에게 흡족하게 대접하며, 대운(大運)의 기대와 무사고(無事故)에의 위안을 얻는다.

고사(告祀)에 참여한 사람들은 장고, 북, 꽹쇠, 징등 농악기(農樂器)를 준비해 가지고 와서 악기(樂器)를 치며, 흥을 돋운다.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 술잔을 권하고 음악(音樂)에 맞춰 벙글벙글 돌며 춤을 추며 흥에 젖는다. 술기운이 얼큰해지고 시간이 얼마큼 지나면 계속 악기(樂器)를 울리며 그 배를 타고 앞바다를 한 바퀴 빙 돌아 온다. 오색기(五色旗)를 휘날리며 풍장소리 요란하게 배가 도는데 정취가 넘친다.

고사시간(告祀時間)은 일정치 않고 대개 오후가 되거나 밤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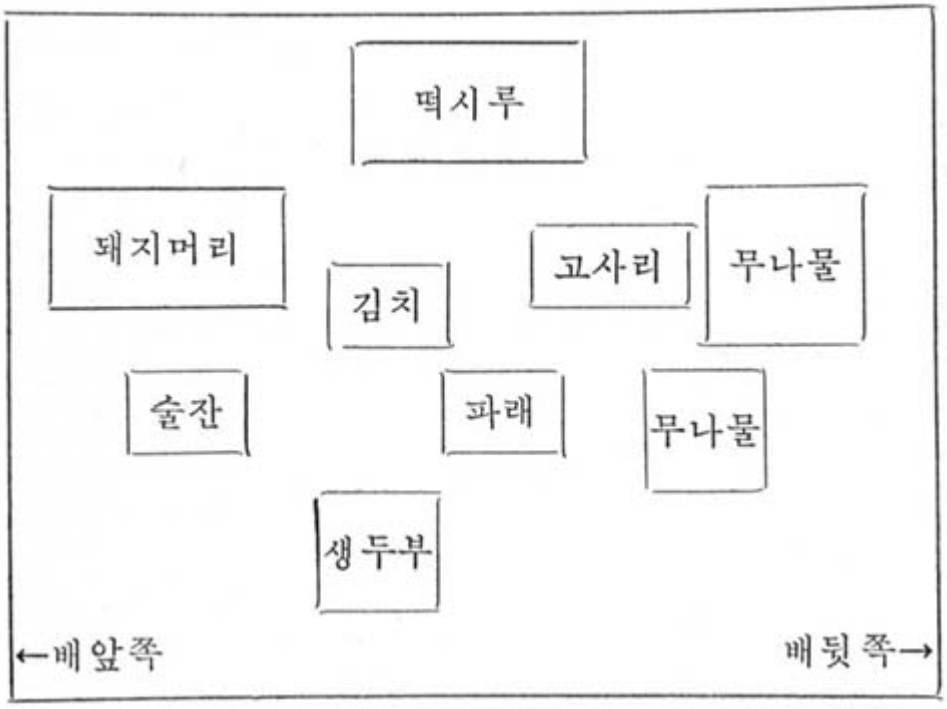

그림 2.

3. 수혼제(水魂祭)

마을 전체의 도화성(同化性)은 지니지 못하나 역시 바닷가의 제의(祭儀)로서 수혼제(水魂祭)가 있다. 각 가정(家庭)에서는 정초(正初)나 상원(上元)에 고사(告祀)를 지내면서 가족 중에 바다에서 사고(事故)로 인하여 수사(水死)를 한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바닷가에 메와 찬 몇 가지 간단한 제물(祭物)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가서 차려 놓고 제(祭)를 지낸다. 이는 바다에서 명을 다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은 혼령(魂靈)에 대(對)하여 지

내는 제(祭)로서 바다에 떠도는 고혼(孤魂)을 위로하고 진혼(鎭魂)시키는 제(祭)이다. 이 제(祭)는 그해의 정초(正初) 외에 다른 명절(名節) 때에도 지내는 경우가 많다.

4. 용왕제(龍王祭)

이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에서의 용왕제(龍王祭)는 그 고사형태(古事形態)를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각 가정(家庭) 단위로 주로 주부(主婦)들이 정초(正初)와 출어전(出漁前)에 지내는 고사(告祀)이고, 또 하나는 순전히 출어전(出漁前)<배고사>와 동일(同一)한 형태(形態)의 고사(告祀)이다. 두 고사(告祀)는 모두가 출어(出漁)를 앞두고 무사(無死)와 풍어(豊漁)를 기원(祈願)하는 고사(告祀)이나 앞의 경우는 가정(家庭) 단위로 주부(主婦)가 주관(主管)하는 고사(告祀)이고, 후(後)의 경우는 배(선(船))단위의 선주(船主)가 주관하는 고사(告祀)이다. 따라서 주부(主婦)가 주관(主管)하는 고사(告祀)는 무사(無事)와 풍어(豊漁)의 기원(祈願)이 고사목적(告祀目的)의 전부(全部)이지만, 선주(船主)가 주관(主管)하는 고사(告祀)는 그러한 기원외(祈願外)에 주연(酒宴)을 베푸는 데에도 큰 의의(意義)가 있다. 그래서 어부(漁夫)들의 사기도 돋구어 주며 신념과 의욕을 갖게 하여 주고, 고사(告祀)에 참여한 주민(住民)들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게하는 구실도 한다.

가정(家庭) 단위의 주부(主婦)가 주관(主管)하는 용왕제(龍王祭)는 정초(正初) 첫 용날(상진일(上辰日))또는 정초(正初) 평일(平日)과 출어전(出漁前)에 지내는데 특히 출어전(出漁前)에는 같은 시기(時期)에 거의 각가정(各家庭)마다 제(祭)를 지낸다.

고사시간(告祀時間)은 일정치 않으나 원산도(元山島)의 경우는 밤 12시(時) 경에 많이 지내고 인근 섬에서는 저녁과 새벽에 지내는 경우도 있고 낮을 택하여 지내는 사람도 많다.

이 고사(告祀)는 주부(主婦)가 단독으로 행하며, 제물(祭物)은 메와 나물, 건어 조림 등 간단히 준비한다. 그래서 바닷가에 차려 놓고 바다에 향(向)하여 절을 하며 가족(家族)의 무사(無事)와 풍어(豊漁)를 기원한다. 고사(告祀)가 끝나면 제물(祭物)을 조금씩 백지에 싸서 물에 띄우고 남은 제물(祭物)은 집으로 가지고 돌아온다.

선주(船主)가 주관(主管)하는 용왕제(龍王祭)는 출어기(出漁期)인 2, 3월경(月頃)에 많이 지내고 매달 출어(出漁) 때마다 산발적으로 지낸다.

고사시간(告祀時間)은 대개 오후(午後)가 된다. 이 경우 제물(祭物)은<배고사>때 처럼 풍성하다. 떡시루와 막걸리, 돼지머리, 나물 등을 선상(船上)에 차려 놓고 바다에 향(向)하여 절을 하며 안전(安全)과 풍어(豊漁)를 기원(祈願)한다. <배고사>의 대상신(對象神)이 배서낭인데 비하여 이 용왕제(龍王祭)는 대상신(對象神)을 바다를 주관(主管)하는 신인 용왕(龍王)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에서 주민(住民)들이 말하는 용왕제(龍王祭)는 주부(主婦)들이 주관(主管)하는 고사(告祀)를 더 의미(意味)하고 있다.

5. 결언(結言)

이상(以上)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원산도(元山島)와 인근 섬)의 제의(祭儀)에 관해서 살펴 보았는데, 우선 이 지방(地方)의 제의(祭儀)에 대(對)해서 특징적(特徵的)인 것을

든다면 고사형식(告祀形式)은 비슷하면서도 각기 독특한 성격(性格)을 갖는다는 것이다. 제의(祭儀)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대체적(大體的)으로 한국사회(韓國社會)에서 가정(家庭)의 제의(祭儀)와 부락(部落)의 제의(祭儀)로 나누어 볼수 있고, 부락(部落)의 제의(祭儀)를 다시 동제(洞祭)와 별신제(別神祭)로 나누어 볼수 있다. 여기서 동제(洞祭)에 대(對)해서는 언급을 않고 바다와 관련한 제의(祭儀)만 살펴 보았는데 이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의 배고사나 용왕제(龍王祭)는 영동해안지방(嶺東海岸地方)의 별신제(別神祭)인 풍어제(豊漁祭)와 비교(比較)하여 볼 때 영동해안지방(嶺東海岸地方)의 풍어제(豊漁祭)가 마을 전체의 풍어(豊漁)와 마을의 안녕(安寧)을 기원(祈願)하는 다의적(多意的)이고 복합적(複合的)이며 전체성(全體性)을 띈 제의(祭儀)임에 대(對)하여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의 제의(祭儀)는 어선(漁船) 단위의 풍어(豊漁)와 무사(無事)를 기원(祈願)하는 개별성(個別性)을 띈 제의(祭儀)로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어떤 면에서는 좀더 세분된 목적(目的)의 제의(祭儀)로 볼 수 있으며 구체성(具體性)을 지녔다고 볼 수가 있겠다. 그것은 수혼제(水魂祭)나 용왕제(龍王祭)에서도 느낄 수 있는 현상(現象)이다. 따라서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의 제의(祭儀)는 자연적(自然的)으로 동해안(東海岸)에 별신제(別神祭)보다는 연희성(演戱性)이 없고 주연(酒宴)의 목적성(目的性)을 더 지닌 것으로, 한마디로 하면 실리적(實利的)인 제의(祭儀)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면서도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의 제의(祭儀)는 주민(住民)의 관심 속에서 개별적(個別的)인 제의(祭儀)가 결합(結合)하여 섬전체의 행사로 이루어지는 점이다. 본고(本攷)에서는 동해안(東海岸)의 제의형태(祭儀形態)와 비교연구(比較硏究)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의(祭儀) 원형(原形)이나 변형(變形) 등(等) 더 이상 비교(比較)에서 오는 문제점은 차후로 미루기로 하고 원산도지방(元山島地方)의 바다와 관련한 제의(祭儀)에서 배고사 때 다는 기(旗)의 의미(意味)와 대상신(對象神), 즉 색기(色旗)는 설빔에 해당하는 호사(豪奢)한 장식(裝飾)이냐, 아니면 신체(神體)의 표징(表徵)이냐 하는 문제와 고사(告祀)의 대상신(對象神)이 과연 서낭(성황(城隍))이냐, 아니면 선왕(船王)이냐 그것도 아니면 용왕(龍王)과 결부되는 어떤 해신(海神)이냐 하는 문제점(點)을 연구(硏究)의 대상(對象)으로 남기면서 본고(本攷)를 맺고자 한다.

1) 文化財管理局發行. 「韓國民俗綜合調査 報告書」<濟州道 篇> p. 84
2) 任東權著 「韓國의 歲時風俗」, p. 41